

월요일엔 지역민과 함께 '인문예술콘서트'

전남대사대부중 강당서 6월·9월 매주 시민 소통 강좌

인문학, 미학, 철학, 심리학, 미술, 음악 등 다양한 분야의 주제를 지역사회와 함께 나누는 인문예술콘서트가 열려 눈길을 끈다.

전남대사대부중(교장 최숙)은 6월과 9월 매주 월요일(오후 4시~6시) 4층 소강당에서 인문예술감성 콜라보를 진행한다. '6월과 9월에 만나는 인문예술콘서트'라는 제목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인문예술을 매개로 교육 공동체의 인문소양을 기르고 지역사회 시민들과 소통하고자 마련됐다. 광주 동부교육지원청과 광주시교육청 예술교육지원회 '비상'이 후원한다.

매 시간 강좌는 김수옥 교사(미술)의 '떠먹는 미술 이야기'로 문을 연다. 김 교사는 강좌 주제와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미술 작품을 골라 이야기를 풀어낼 예정이다.

5일 시작하는 첫 번째 강좌는 첼로 선율과 함께 하는 음악이야기다. 영광중 교사이자 첼로연주자인 이대호 강사가 '첼로가 들려주는 음악이야기'를 매개로 학생들과 시민을 만난다.

인문학·철학·미술·음악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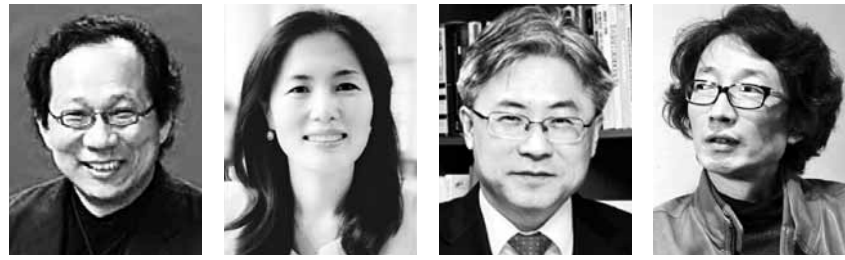
다양한 분야의 주제로

인문예술감성 콜라보 진행

12일에는 김용근 동강대 교수가 '삶과 예술을 위한 대칭의 비대칭화'를 주제로 미학 강의를 한다. 김 교수는 삶 속에서 발견하는 미학적 사유와 예술을 이야기하며, 박정순 성악가가 강의와 관련된 노래를 선사한다.

19일에는 스피칭에 관한 강좌다. 전남대 객원교수인 박진영 공공커뮤니케이션 연구소 대표가 '매력 있게 말하기'를 주제로 강연을 한다. 날로 말하기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현실에서, 박 교수의 강연은 말하기에 관심이 있는 이들에게 유익할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은 천행복 교사가 피아노를 연주한다.

'신명나는 판소리 한마당'은 26일에 펼쳐



김용근 교수 박진영 대표 조정완 교수 정익석 교수

진다. 임방울 국악대전 대통령상을 수상한 주소연 명창이 판소리에 관한 전반적인 이야기와 아울러 소리 한 대목을 들려준다.

9월 4일에는 정의석 인문지행 교수가 '몸이 아픈가? 마음이 아픈가? 심리치료의 시작, 프로이트'를 주제로 심리학을 매개로 참석자들과 이야기를 나눈다. 갈수록 '마음이 아픈' 이들이 늘어나고 있는 요즘, 몸과 마음의 상관관계 등을 주제로 폭넓은 대화를 나눌 예정이다. 이대로 첼리스트가 강연 주제에 맞는 곡을 연주한다.

11일에는 커피를 주제로 한 인문학 강좌다. 최우성 인덕대 외래교수가 커피에 대한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커피인문학'시간이 예정돼 있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이와 관련된 강연도 마련됐다. 18일에는 조정완 전남대 교수를 초청해 '4차 산업혁명에 대하여'를 주제로 우리의 미래에 대해 숙고하는 시간을 갖는다. 일과(AD)로 대변되는 인공지능과 향후 달라질 직업 세계 등을 가능해볼 계획이다. 강의 이후 천행복 교사의 건반 연주가 이어진다.

마지막 강의는 철학이다. 25일에는 광주교대 강성을 교수가 '칸트, 근대 철학을 완성하다' 주제로 불리한 조건을 딛고 철학의 일가를 이룬 철학자 칸트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어 바이올리니스트 이희영 씨의 연주가 이어진다. 문의 062-530-3804. /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한국 가곡의 향기

광주오페라단, 2·3일 유스퀘어 금호아트홀서 공연

지난 1982년 창단한 광주오페라단은 35년 역사를 자랑하는 광주의 대표 오페라단이다. 광주오페라단이 지역 전문 성악가들과 아마추어 성악가들이 함께 하는 음악회를 마련해 눈길을 끈다.

'시민과 함께하는 오페라단'을 표방한 광주오페라단은 2일~3일(오후 7시30분)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한국 가곡의 향기'를 주제로 두 차례 공연을 갖는다.

2일 공연은 전문 성악가들이 꾸민다. 메조 소프라노 김하늘·전진, 테너 조효중·임영민·김홍태, 소프라노 홍선희·길애령·김진희가 작곡가 최영섭, 김효근, 김정수 등 3명의 작곡가의 작품을 노래한다.

레퍼토리는 '내 영혼 바랍디어', '가을의 노래', '첫사랑', '안개꽃 사이로', '넋 그리는 마음', '압해도' 등이며 피아노 반주는 나원진, 박지현, 이유정

씨가 맡았다

3일 공연은 지역 아마추어 성악가들의 무대다. 테너 이상현(미래로21병원 심장내과 원장), 소프라노 김종래(광주가곡부트리 운영위원), 테너 장흥식(메디칼메센터 대표원장), 테너 김상훈(광주병원 내과원장), 소프라노 정경숙(광주서일초교 교장), 테너 박진영(밝은 피부과 원장), 테너 김중석(상무병원 정형외과 원장), 테너 이대형(어썬 싱어즈 리더), 소프라노 김영미(광주남구합창단 솔리스트) 등이 출연한다. 레퍼토리는 '그리움', '내 맘의 강물', '그리운 금강산', '목련화', '고향의 노래', '연꽃 만나고 가는 바람 같이' 등이다.

피아노 반주는 이창준·손지영·정유진씨다. 티켓 가격 전석 2만원, 문의 062-651-3404. /김미기자 mekim@kwangju.co.kr

5·18 알리려다 산화한

광주 밖 사람들 이야기

광주MBC 김철원 기자 '그들의 광주, 우리의 광주'



정권 교체와 함께 '임을 위한 행진곡'을 되찾은 올해의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은 뒤를 떠난 가던 광주와 명예를 되찾아줬다. 문재인 대통령은 5·18 기념사를 통해 표창, 박재진 등 이 름조차 희미했던 열사들을 호명하며 서러운 죽음과 고난이 없는 대한민국을 약속했다. '그들의 광주'가 밝힌 촛불이 그들을 드러내는 빛으로 '우리들의 광주'로 거듭날 것이다.

광주 5·18을 알리려다 산화한 광주 밖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룬 책이 출간돼 화제다. 광주MBC 김철원 기자가 펴낸 '그들의 광주, 우리의 광주'(한울 에ampler스)는 "광주학살 진상규명"을 외치며 산화한 10인의 순교자들의 삶이 수록돼 있다.

저자는 분신과 투신이라는 자기희생의 방법으로 광주를 알린 이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민주주의를 누릴 수 있었다고 강조한다. 그들은 하나같이 '광주'를 목장껏 외치며 한국 민주주의를 위해 기꺼이 '희생'했다.

책에는 모두 10인의 순교자들에 대한 한 줄의 기록이 있다. 언론이 신군부에 의해 진실이 호도될 때 "동포여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며 광주를 알리다 죽음을 맞이한 김기, 광주

시민·학생들의 넋을 위로하며 풀포기 같은 삶을 보살핀 김종태, "전두환은 물러가라"는 세 번의 외침 후에 계단을 피로 적신 김태훈, 살아남은 자의 슬픔을 희생으로 승화시킨 홍기일, 전태일과 같은 궤적을 걸어 광주학살을 알리고 불꽃이 된 송광영이 그들이다.

또한 예비군 훈련장에서 전두환 처단을 외치다 혹독한 고문 끝에 숨진 장이기, 미국을 규탄하며 케로신을 끼얹고 산화해간 표창두, 불길 속에서도 나라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쳤던 부산의 황보영국, 군부정권의 연장을 한탄하며 자신을 불태운 박재진, 유월항쟁의 퇴색에 분노하며 몸을 던진 김병구의 숭고한 죽음도 있다.

저자는 신군부의 치 떨리는 당당한 앞에 일상을 꿈꿀 수 없었던 젊은이들의 삶을 다각도로 조명한다. 그들의 글과 보도 기사, 유족과 지인의 인터뷰, 추모글 등을 통해서다.

"더 나은 사회를 갈구하며 누구보다 차갑게 현실을 바라봤고, 누구보다 따뜻하게 사람을 사랑했던 이들 열 사람의 용기 있는 선택은 6월 항쟁의 불씨가 되고, 2017년에는 촛불이 되어 현재를 밝히고 있다." /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변타 스님 이주향 교수

사직골에서 펼쳐는 인문학 향연

6~10월 옛KBS 광주방송총국



성진기 전남대 철학과 명예교수가 운영하는 '카페 필로소피아'가 오는 10월까지 '사직골에서 펼쳐는 인문학 향연'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사진은 프로그램을 기획한 성 교수.

'카페 필로소피아' 인생의 품위, 인문학에서 찾다

철학, 종교, 노문학, 공학, 언론학, 역사학,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청, 삶을 살아가는 지혜를 얻는 인문학 강의가 열린다. 인문학적 성찰을 통해 품위 있는 인생 설계를 꿈꾸는 프로그램이다.

올해로 창립 21년을 맞은 '카페 필로소피아(Cafe Philosophia)'와 '문화도시 공작소 인유'가 함께 진행하는 '사직골에서 펼쳐는 인문학 향연-인생의 품위, 인문학에서 찾다'가 오는 6월부터 10월(월요일 오후 7시) 옛KBS 광주방송총국까지 모두 10차례에 광주시민들을 만난다.

이번 강의는 광주평생교육진흥원이 진행하는 '2017 인문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 선정 프로그램으로 각 분야 전문가들의 강

연과 토론, 영상감상 등이 함께 어우러진 기획이다. 카페 필로소피아를 이끌고 있는 성진기 전남대 철학과 명예교수가 기획과 총괄 업무를 맡았다.

오는 19일 열리는 첫번째 강의는 이주향 수원대 철학과 교수가 담당한다. 이 교수는 '나를 만나는 시간'을 주제로 강연할 예정이다.

이어 7월 10일에는 손병석 고려대 철학과 교수가 '배고픈 소크라테스의 메시지'를 주제로 강연하며 17일과 24일에는 문석우(조선대 노문학) 교수와 최혜영(전남대 사학과)교수가 각각 '플스토이에게 인생의 길을 묻다'와 '신화가 던지는 인생의 답'을 주제로 시민들을 만난다.

그밖에 ▲번뇌의 구름 어찌할까(8월 7일·행복선원 법타 스님) ▲문학이 역설하는 행복의 역설(8월 14일·나희경 교수·영문학·전남대) ▲종교와 동행하는 인생의 의미(9월 11일·김영태 교수·종교철학·전남대) ▲우학에서 찾는 '사람다움'(9월 18일·최대우 교수·철학·전남대) ▲과학적 사고의 가치(10월 16일·공학·강신영 국립광주과학관장) ▲말과 사람의 인격(10월 23일·박진영·언론학·공감커뮤니케이션 연구소) 등의 강연이 이어진다.

그밖에 강릉 선교장으로 인문학 여행도 떠나며 광주의 '훈, 흥, 멋, 맛'을 체험하는 동아리 활동도 펼친다. 또 광주평생교육원이 주관하는 박람회에도 참여 '철학 콘서트' 선보일 예정이다.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미리 수강 등록을 하면 된다. 지난 1996년 성진기 교수가 문을 연 '카페 필로소피아'는 지금까지 니체쇼, 인문학 Sall' 등 인문학과 관련한 다양한 행사를 열어오고 있다. 지난해에는 창립 20주년을 기념해 최진석, 이명현 교수 등을 초청, '철학이 무엇을 하라'를 주제로 강연, 음악, 미술이 어우러진 '철학 콘서트'를 개최했으며 회원들과 철학자들의 흔적을 찾아 '유럽 인문학 소풍'을 떠나기도 했다.

전남여고 정문앞 1층에 자리한 '카페 필로소피아'에서는 성진기 교수가 함께하는 '서양철학 산책'(월요일 오후 7시~9시), 독서 동아리 '서유회'(매월 넷째 주 수요일 오전 11시~오후 1시) 등 다양한 강의가 열린다. 문의 010-9603-3244. /김미기자 mekim@kwangju.co.kr

2층 상가매매 (CGV 광주용봉점)

카페(인테리어완료), 병원, 미용실, 학원, 당구장, 탁구장, 체육관 등

- 전용 289㎡ (약87평) 분양면적 약150평
- 현재 카페 인테리어(160㎡) 및 공실(129㎡)
- 매매 7억원(근저당 5억원), 실투자 2억원

락 불링장 매매 (CGV 광주용봉점)

최신인테리어 락 불링장, 현성업종, 직영하실 분 유망사업

- 불링장 16래인, 시설비품 일체포함
- 매 26억원 (근저당 20억), 실투자 6억원

문의 010-3647-4747

상기물건은 전속중개 물건으로서 급매가 입니다

www.솔향기맑은터.com

NAVER 솔향기맑은터 검색

전남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171(풍림죽림길 86)

대표전화 (061)336-0770

솔향기정식(예약에 한함) 참숯구이 돼지갈비 전문점

www.솔향기맑은터.com

061)336-3939

참숯가마

24시간 OPEN!!

맛의향연

솔향기 맑은터는 충청남도 진평읍 그리고 혁신도시에서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다량의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불베는날 화, 목, 토, 일 불베는 날이 아니어도 화로방에서 원적외선 샤워 사전예약시 컨퍼런스룸, 족구장, 10인실, 20인실 무료이용 평균작용으로 시 및 바이러스 퇴치에 도움을 주는 목초액 연가공급 1톤 30만원 (양돈, 양계, 한우, 하우스농가대상) ▶ 참숯가마 고객님이 식당 이용시 10% 할인

참숯구이 돼지갈비 13,000원 (눈,비오는날 9,900원)

- 단체모임을 위한 8인실, 16인실, 32인실, 56인실 구비
- 솔향기정식(예약에 한함), 돼지갈비 전문점
- 돼지갈비를 드시면 참숯가마 찜질방 20%할인
- 주말 및 단체모임은 사전예약을 해주시면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각종모임(상견례, 가족모임, 기업체모임)/컨퍼런스룸/참숯가마 찜질방/노래방 & 동전노래방